

Tianzhu, 대규모 Barium 생산단지로!

Hebei 생산기지 Tianzhu로 이전 ... Barium Carbonate 30만톤 예상

중국 Haohua Chemical Industrial Group의 Hebei Xinji Chemical Group은 생산기지를 서부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중국 남부지역에 있는 Guizhou Tianzhu로 직원 30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Hebei는 Guizhou Tianzhu에 지분 100% 소유의 Barium Salt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Hebei는 40년 이상의 Barium Salt 생산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Barium Sulfate, Barium Carbonate, Barium Nitrate, Barium Chloride 및 Strontium Carbonate 생산능력이 총 18만톤에 달한다.

Tianzhu는 Barite 매장량이 1억8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 전체 매장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Tianzhu의 Barite는 고그레이일 뿐만 아니라 품질이 우수하고 Barium Carbonate 평균 함유량이 92% 이상이다.

Xinji Chemical Group과 Guizhou Tianzhu는 2003년 6월14일 Tianzhu에 지분 100% 소유의 Haohua Xinji Tianzhu Barium Salt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총 8000만원을 투자해 생산능력 8만톤에 달하는 2단계 Barium Carbonate 플랜트도 건설할 계획이다.

3단계 플랜트는 총 1억2000만원을 투자하고 Barium Carbonate 생산능력이 15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Tianzhu 플랜트 건설은 이미 시작됐으며 2004년 3월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Xinji Chemical Group의 Barium Salt 생산능력은 총 30만톤에 달할 전망이며 세계 최대의 Barium Salt 생산기업인 동시에 수출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Chemical Journal 2003/10/08>